

한국문화교류 소식

41호 2021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는가

- 의지, 양심, 사랑 그리고 권력에 대하여



정 순 영

국회 정무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

태초에 하느님(神)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자신의 형상으로 빚었으므로(그러므로 처음부터 인간의 오만이 예기되었다고도 한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설과 형상만 주었으므로 그의 영혼은 복종의지에 놓였다고 하는 두 주장이 소위 창조설에서도 다시 세부 논란영역으로 다투고 있지만 인간을 처음부터 움직이게 하는 동인(動因)에는 우선 '의지'라는 것이 있다. (의지의 본질을 플라톤은 이성과 감정과

또 다른 본성이라고 얼버무렸는데 많은 연구 끝에 이는 둘 사이를 오가면서 이성을 보완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알 수 없는 심적 에너지라고 하였고 최근 뇌과학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손이 번창하여 먹거리와 잘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그리고 번창을 위한 짝거리의 적정배분에 문제가 생겨 소위 약탈과 전쟁, 폭력과 살육이 횡행하여 이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버릇이 생기면서 철학이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원래 스스로 생노병사하는 자연적 문제에 대해 인간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해결을 위하여 길을 찾다가 불가해한 자연현상에 외경심을 가지고 신봉해 왔던 과거의 미신(원시종교)에서 좀 더 개량된 형태의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른바 종교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별개로 먹거리, 잘거리, 짝거리의 해결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해결해야 하므로 '모두 그리고 각자'가 따라야 될 규범이 있어야 함을 깨달으면서 도덕의 등장을 보게 된다. 야스퍼스와 암스트롱이 말하는 B.C. 5~4세기 '축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또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도덕은 모두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양심'이다. 철학의 비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도달하여 남긴 말들 중 압권인 석가와 그의 제자들이 '네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예수의 본래 뜻을 왜곡하여 종교국가를 이룩하고 인간의 삶을 강박하게 만들어 온 중세 암흑시대의 마감을 예상한 서구 15세기 종교개혁의 선각자인 후스가 화형으로 죽으면서 남긴 말 '진리는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양심을 두고 한 말이다.

또 공자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면서 황금률을 설파하고 18세기 칸트가 나타나서 그 황금률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명령을 네 이웃에게도 보편적 절대명제가 되게 하라'고 똑같이 재창하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에 박힌 도덕률'이라고 멋지게 표현할 때 그 도덕의 핵심도 역시 '양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탐구로 들어가 찾아낸 보물이고 성배였다.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그런 세상만 만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의 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현자들의 깨달음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자초한 전쟁과 살육의 참혹한 대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렇다고 신의 의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거부하는 계몽시대의 끝물에 나타난 철학자 헤겔과 마르크스는 신을 쫓아내고 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내세운 소위 '이성'의 간지(奸智) 또는 '역사'의 간지라고 하였다. 양심은 어느듯 이성과 역사로 맘대로 멋대로 훼손되고 오용되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역사에는 '양심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지배복종을 강요한 서양의 기독교 종교국가와 동양의 유학 도덕국가(조선의 성리학 도덕국가를 포함하여)에서 장기간 활용해 온 것이 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랑'(또는 仁과 慈悲)이다.

사랑의 본질은 오랫동안 '나누고 배려하는' 속성으로 예로스나 아가페 등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달라질 수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 사랑이 그렇게

순도높은 양심의 다른 이름으로 수궁되면서 80세 된 괴테가 16세 처녀의 부친에게 딸을 달라고 해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흔히 '양심도 없는 노인'이란 편견은 커녕 애련(愛憐)한 낭만주의 문학표현의 에피소드로 남은 것이리라. 그리고 기어코 20세기까지 와서 벌어진 제1,2차 세계대전이 축의 시대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과 살육을 다시금 재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축의 시대에 발견한 양심과 사랑은 20세기 말까지도 그 본질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양심도 사랑도 갑자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니체가 제창한 '도덕적 상대주의' 또는 '상대적 도덕성'이 더욱 힘을 얻으면서 일단 종교에서 신을 축출하고 대타로 내세운 이성마저 쫓아내면서 소위 '탈근대(Post-Modern)' 세상이라는 커다란 혁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희랍인 조르바'가 말한 '신이여 악마와 함께 영원하길'에서 은유했듯이 사랑이 스스로 또 다르게 배태하고 있었던 '소유하고 강제하는' 속성이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마침내 성폭력과 미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고아한 사랑의 속성을 희롱하다 못해 양심마저 저잣거리의 광대놀음 속에 던지는 도덕 상대주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그렇게 강한 돌개바람과 쓰나미의 문명과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계의 전위병처럼 찌칙하게 앞장서 온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더 뒤틀린 현상으로 '뻔뻔'과 '국민정서주의' 그리고 최근의 '내로남불'은 한국 정치사회현상의 특징으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물론 동서양이 다함께 지금까지의 문명에 대한 새로운 회의(懷疑)와 해석을 해야 하고 다시 깨달음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문명사와 지성사를 쓸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의지'와 '양심'과 '사랑'이 인간을 사회와 국가를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왔는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다 일까?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의지(자유의지인지 아닌지는 계속 알 수 없지만)를 주면서 양심도 사랑도 함께 주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인간과 역사에서 현시되고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세상과 인간의 움직임은 양심을 목적으로 의지를 수단으로 그리고 사랑이 양자를 잇는 교량으로 작

용하였음이 맞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을 ‘각자 그리고 더불어’라고 마냥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되지 않는 빠진 것이 있을 법하다. 무엇일까?

바로 권력이다. 니체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의 극대화(요즘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말하고 연이어 제5,6차도 전개될 것이다)로 인간은 영혼이 빠져나간 채 아무런 활력도 소생의 기미도 없는 허무주의 세계로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도덕적 상대주의 도래 주장은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에 백년을 내다보면서 예언같이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후 도덕과 윤리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마치 그의 예언을 하나하나 확인이라도 하듯이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검증해 왔는데 불행히도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허무주의 세계에 판을 치는 것은 말초신경적인 예능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더욱 결합하든지 아예 그런 세상이 말세라고 보면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자는 식의 전체주의 벽을 쌓든지(중국의 시황제의 등장과 시대착오적인 탈레반 무슬림 국가의 제기는 예사롭지 않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사이버 종교가들이 아니라도 말세가 예견되고 또 지구환경이 악화되기 전에 미증유의 불상사가 인간사회에서 보다 먼저 현실화될 조짐이다.

백년 후에나 자신을 알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니체는 지적했다. 말하자면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면서 빼놓지 않고 있던 것 중에 인간이 애써 빼놓고 무시해 왔던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신도 이성도 모두 거부했으므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최종적인 대안이 권력으로 본 것이고 권력이 생의 원천이고 영원회귀의 에너지로 본 것이다. 여하튼 니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서구 지성계에서는 권력연구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는 권력이 니체의 사상을 해석하는데 핵심 용어로 쓰여질 뿐 권력 자체의 연구는 희소하고 사회과학계나 정치현실에서는 정치권력 개념으로 쓰일 뿐이다. 그것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필요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물론 권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성배’라고 올슨교수도 말했지만 니체도 확실치 않아서 권력보

다 ‘권력에의 의지(Wille zu Macht)’에 중점을 두고 고뇌의 사색을 거듭하다가 책 출간을 하지 못하고 아포리즘적 단편으로 구성된 유고속에 그 뜻을 담아 놓았다.

여기서 권력을 정의해 보자면 ‘권력은 의지와 양심과 사랑을 모두 아우르는 세계와 인간의 본체이다.’ 말하자면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권력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마도 초기에 철학과 종교의 선각자들도 그렇게 보았지만 권력의 본질이 너무 애매하고 광대무변(廣大無邊)하여 성경이 적절하게 이를 말씀이라고 정리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해석과 이해에 대하여 니체가 살아있으면 그도 필경 동의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는 권력에 대하여 보다 진중하고 철저하게 연구해 볼 때가 된 것이다.

권력 연구를 위해 우선 한 가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앞서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인 중 사랑과 권력과 관계이다. 흔히 사랑이 ‘나누고 배려하는’ 속성 외에 ‘소유하고 강제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권력도 바로 그런 ‘소유하는 실체성’과 ‘나누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실체이다. 인간사에서 사랑은 대체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속성이 90% 이상으로 반면 권력은 차갑고 강제하는 속성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오면서 억울하게 권력은 잘못 독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사랑도 권력과 진배없이 90% 이상 차갑게 (따뜻함을 병자하면서) 소유하고 강제하는 속성임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페미니즘운동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

결국 권력은 사랑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볼 때 권력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 권력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양심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전술했는데 거기에 의지를 보탠다면 이 삼자는 결국 태초에 권력의 세 쌍둥이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권력의 연구는 미답의 영역이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권력이 원래 그런 거지’라든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든가 ‘권력의지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유아적(幼兒的)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치

는 권력을 수단시하고 현실 정치인들은 권력의 획득과 쟁탈이 권력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결한다는 식의 편향된 인식과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시민들에게조차 아무런 성찰없이 언뜻 보기에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권력관이 널리 팽배해 있다. 바로 '실체적 권력관'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실체적 권력관은 서구의 경우 당초 과거 신권(神權)과 왕권의 정치권력이 세습과 관습에 의한 천부권력으로 인정받아 오던 중세 봉건시대에 충만한 것이었지만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가 차례로 펼친 근대국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권과 주권이 '여럿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여럿으로' 나누자는 사회계약사상에 의하여 관계적(이고 절차적)인 권력관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되었다. 특히 후자의 '관계적 권력관'이 바탕이 된 현실정치에서는 '토론과 타협'이나 '소수자 보호를 전제한 다수결 원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의 성립과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가 문명국가 제도화의 결실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다만 동시대에 전개된 자본주의의 도래와 발전과정에서 경제 권력에는 무한자유경쟁논리가 배태된 '소유하고 쟁탈하는' 실체적인 권력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그 결과 정치권력 부분에도 이러한 권력관은 강하게 스며들고 위협하여 온 관계로 민주주의의 정치는 상당한 위기를 맞아 오면서 지금까지도 수정과 보강을 거듭하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20세기 초반 파시즘, 볼셰비키즘 등 전체주의 광풍과 20세기 후반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열풍도 바로 이러한 권력사가 낳은 최근 현대사의 장면들이다.

여하튼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의 경우 두 개의 권력관이 어느 극단으로 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와 경제부문에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존속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가형성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아직은 일천하고 미숙하여 '실체적 권력관'이 지속적으로 우세하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비틀거리는 정치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실체적 권력관을 극복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이 없으면 한국의 장래는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세계사적 변동과 갈등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부분의 치유가 없이는 한국의 앞날은 그냥 국운(國運)에 맡기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혹자는 미국 트

럼프의 정치관과 권력관도 사뭇 그러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미국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서구정치(일본도 포함된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나누고 배려하는 관계적 권력관이 정치환경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정치문화화되어 약간의 엇길로 가더라도 제자리를 찾는 '제도정치'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보다 무언가 불안하고 무거운 추(錘)가 가슴 한가운데 와 있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이 현상의 근저에는 권력과 권력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왜곡과 오해가 장기간 방치되어 오면서 나타난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한국적 특수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즉 한국인의 내부에는 권력과 권력개념이 해방이후 국가형성기부터 경제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한 이념갈등 빈부갈등 등이 혼합된 한국적 갈등의식으로 자리잡아 난해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속에 유전자화된 한(恨)과 함께 더욱 거친 개념과 내용으로 세속화되면서 자탄(自歎)과 남 탓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생(自生)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역시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심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글의 결론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을 움직여 온 그 무엇에 대한 지성사적 사유를 다시 가다듬어야 하되, 극단적이지 않고 다원화되고 균형잡힌 사고와 행동이 바탕이 된 개인의식, 사회의식 그리고 문화의식의 고양된 자각을 '각자 그리고 다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각된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이 대세가 된다면 그동안 인류가 어렵게 쌓아올리고 있는 문명국가로의 성취가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 성공을 거두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한국정치가 진정한 인류문명의 대장정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아니 하였다는 겸허한 자기성찰을 계속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반지성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지식인들의 사명과 책임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 기고

태권도, 올림픽 ‘스포츠 약소국’에 꿈과 희망을 주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겸 ICKC 총재를 역임하고 계시는 조정원 총재께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관한 글을 특별히 기고하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통적인 태권도 강국들이 ‘노골드’를 기록했지만 이는 태권도 수준의 평준화를 뜻하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태권도가 스포츠 약소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하였습니다. 조 총재 또한 이번 올림픽 결과에서 드러나듯 태권도가 한국이 세계에 준 진정한 선물이 되었다고 전하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보다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경기가 되도록 고민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귀한 글 보내 주신 조정원 총재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드립니다. _ ICKC 사무국



조 정 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ICKC 총재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성공리에 마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올림픽 ‘스포츠 약소국’에 태권도는 메달을 딸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임을 입증한 대회

였다.

3명의 ‘IOC올림픽난민팀’ 태권도 선수를 포함 총 61개 국가에서 13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32개의 메달을 두고 경합을 펼치면서 7개 국가가 8개 금메달 그리고 총 21개 국가가 최소한 한 개의 메달을 나눠 가졌다. 러시아가 금메달 2개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탈리아,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각 1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번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은메달), 이스라엘(동메달)은 처음으로 올림픽 태권도에서 메달을 차지했으며 러시아, 크로아티아, 태국이 올림픽 태권도 첫 금메달을, 그리고 미국이 올림픽 태권도 첫 여자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권도 기술의 평준화가 이뤄진 것이다.

대회 기간 중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스포츠 약소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태권도가 K팝 이전에 한국이 수출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상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태권도 강대국인 이란과 멕시코가 ‘노메달,’ 중국이 동메달 1개, 한국이 은 1개, 동 2개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 ‘노골드’를 기록했다. 젊은 신인 선수들의 대약진으로, 전력이 노출된 영국의 제이드 존스 선수와 한국의 이대훈 선수가 16강에서, 중국의 우징위 선수가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태권도 대회는 태권도 발상지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정신인 페어플레이, 우정 그리고 ‘상대방 존중’을 잘 보여준 대회였다. 여자 태권도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이다빈 선수가 결승전에서 패한 직후 상대방 우승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축하해주었으며 남자 태권도 이대훈 선수는 동메달 결승전에서 아깝게 패했지만 상대편 선수의 오른팔을 함께 치켜 세우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첫 날과 둘째 날 경기장을 방문하여 태권도 경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IOC위원장의 태권도 경기장 두 차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 7월 24일 일본 지바에서 도쿄올림픽 참가자와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왼쪽)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가운데) (사진 연합뉴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필자는 오는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를 보다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5인 이내로 구성된 ‘경기 규칙 개선 특별 위원회’를 발족시켜 연내에 새로운 안을 만들 계획이다. 태권도는 진정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慶 祝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차기 총재 확실히 ...

‘6선 21년’ 세계 태권도계 수장에

조정원(74)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차기 총재 선거에 단독 출마해 2025년까지 세계 태권도계의 수장으로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4년마다 치러지는 WT 집행부 선거는 오는 10월 11일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4년 6월 고 김운용 전 총재의 잔여 임기 10개월을 맡아 세계연맹을 이끌기 시작한 조 총재는 2005년, 2009년, 2013년, 2017년에 차례로 연임에 성공했고, 이번에 6선이 확실히 되면서 2025년까지 무려 21년간 총재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WT는 집행위원의 임기 및 나이 제한을 도입해 신규 위원직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 이전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임 중인 위원들은 80세 이전으로 후보직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아울러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해 대륙별로 여성 집행위원이 의무적으로 한 명씩 선출되도록 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여성 위원은 부총재로 승격된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아메리카 갓 텔런트’ 성공적인 도전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은 시청자 투표로 결정하는 ‘아메리카 갓 텔런트(America's Got Talent, AGT)’에서 안타깝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태권도의 우수성과 화려함을 전 미국인에게 각인시켰다.

WT 시범단은 9월 16일(이하 한국 시간)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메리카 갓 텔런트’ 시청자 투표 결과 발표에서 결승에 오른 10개 팀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데 실패했다. 우승은 마술을 통해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보인 더스틴 태블라(Dustin Tavella)에게 돌아갔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AGT 결승전에서 WT 시범단은 10팀 중 5번째로 출연해 경연 내내 시범단의 장기

인 공중 높이차기와 송판 격파로 객석을 휘몰아쳤다. 심사위원들 또한 박진감있게 끊임없이 이어진 격파 쇼에 탄성을 질렀다.

WT시범단은 현지시간 9월 15일 생방송 결과 발표 직전까지 열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지역 시청자들의 투표에서 비록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미국 전역에 태권도의 우수성과 화려함을 각인시키고 우승 이상의 결과를 창출해냈다.

나일한 단장 및 서미숙 연출 감독을 포함한 한국에서 출발한 17명의 단원과 미국 현지 합류 9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WT시범단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 8강, 준결승, 결승을 위해 근 한 달반 가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미국 현지에서 훈련과 경연 준비에 매진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차와 현지 음식 등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단의 열정적인 공연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태권도에 관한 높은 흥미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도장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WT 시범단의 AGT 출연으로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를 넘어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는 스포츠로서 전쟁과 재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스포츠 이상의 가치를 각인시켰다.

WT 시범단은 2020년 1월 ‘이탈리아 갓 텔런트’에 출연해 골든 버저를 받으며 결선에 진출했고, 해당 영상을

본 '아메리카 갓 탤런트' 측의 거듭된 출연 요청으로 올해 AGT 오디션에 참가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번 결승전을 끝으로 16시즌이 마감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과 달리 정해진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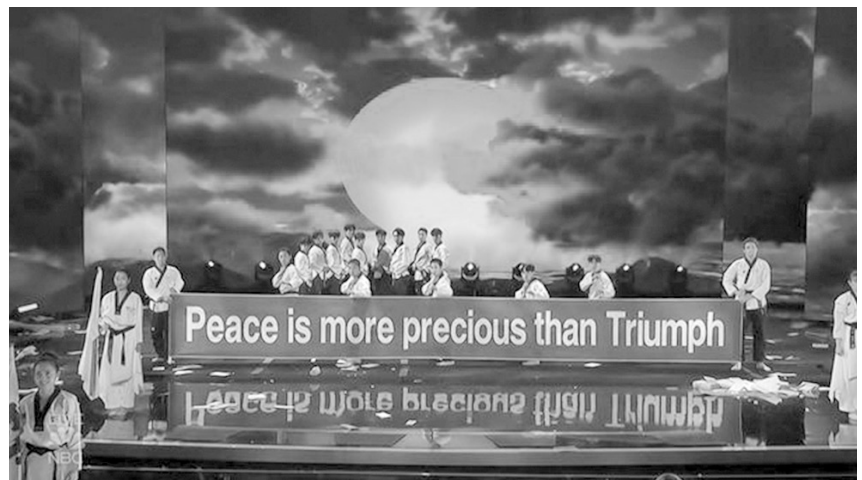
가 없어 다양한 참가자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 WT 시범단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 경연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DPN-ML5wKQ>



▲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전에서 화려한 공중격파를 선보이는 WT 시범단
(사진: NBC-1TV 방송 화면,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경연에서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WT 시범단 (사진: 연합뉴스)

입양인에서 정체성 강한 한국계 호주인으로



오 세 옥

호주 뉴카슬한글배움터 교장

1979년부터 시작되어 호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현재 4,700여 명이다. 처음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한인이 제법 많던 시드니에서 생활하다가 뉴카슬로 이사를 하니 한국인은 많지 않았지만 한인 입양인 가족들이 많았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플레이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한인들이 나타나면서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덕분에 2000년에 '뉴카슬 한글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한글학교가 개교되었고 나는 교장으로 지금까지 20여 년을 한인 입양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어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돌보는 공동체로, 한국인만의 한국문화가 아닌 호주에 한국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의 상처를 가능성과 자긍심으로 바꾸는 참교육을 위해 달려온 20여 년의 세월이 이 글을 쓰자니 주마등처럼 스친다.

제외동포 차세대와 달리 한인 입양인들은 양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한 입양아들은 자신과 인종, 민족적 특성이 같은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한다. 나는 이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가르침과 동시에 한국과 고국의 가정같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술 제품, K-Pop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오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며 한국의 정신문화, 특히 어른 존중의 태도도 배우며 그렇게 그들에게서 분리되었던 한국을 배우고 익힌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 중 야심차게 추진한 것은 이들에게 모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2006년 첫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3년마다 입양인과 그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그 지역과 관련된 곳을 답사한다. 고구려 역사를 배우고 백두산과 발해의 고토를, 신라시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갈등을 배우고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한국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처럼 한국을 체험하며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다. 2006년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정 중에 만난 한국 아이들이 입양아들에게 '너는 한국어를 왜 못해? 왜 백인이 부모야?'라고 묻는 바람에 아이들이 당황하며 운 적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따로 불러 "네가 선택을 해라. 너는 한국인도 될 수 있고, 호주인도 될 수 있지만 한국인과 호주인이 동시에 될 수 있다. 너는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장에 있다"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도전하도록

록 하였다. 그 중 한 학생은 이후 십대 동안에는 한글학교를 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학교의 모든 행사와 활동에 초대를 하면서 끈을 이어갔고 12학년 때는 한국을 더 배우고 싶다며 한글학교 내 사물놀이팀 주장으로 나서기도 하여 정말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새롭다.

입양 가족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한국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인을 만나려면 한인교회라도 가면 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행사 때마다 김치와 한국 음식 등을 제공해 준 웅기김치 사장님, 방학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온 숙명여대팀, 한국 방문 때 축구, 노래자랑, 장기자랑, 씨름 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우리의 일정을 풍성하게 해 준 모교인 양양의 강현중학교 학생들과 동창들, 재외동포재단 등... 이들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을 자신들을 버린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주고 함께해주는 나라로 사랑하게 되고 입양 부모 또한 한국을 좋아하게 된다.

아이 다섯 중에 세 명이 한국계 입양아인 제임스와 올리버 부부는 11년간 학교와 함께 했다. 올리버 부부는 한인교회에도 8년째 출석하면서 주중에는 만날 수 없는 한국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으며 다섯 번이나 한국을 다녀왔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한글학교라며 늘 감사해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

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론 가수 '빅뱅'에 열광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마이클의 양부모는 마이클이 가족 전체의 큰 기쁨이었고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호주가 처한 다문화 현실에서 살아있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도 표현해 주었다.

뉴카슬한글배움터 가족들은 메밀국수도 직접 해 먹고, 또 양부모들은 한국식 술 먹는 법도 배우는데 이러한 뉴카슬한글배움터 가족들 이야기가 MBC 메이퀸이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고 모국 방문 때 춘천 방문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3살 때부터 15년간 학교에 왔던 영호의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는 공주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 생활 중에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 “그동안 한글학교를 억지로 다녔는데 한국에 와 보니 내가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나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동포 학생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뉴카슬한글배움터 선생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감동에 찬 눈물은 사람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든다.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내가 외롭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자 나를 더욱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글에 사용된 입양인 관련 이름은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 호주 '뉴카슬한글배움터'의 교사와 학생들, 수업 모습 등



베트남 공영방송,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제작 방영한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은 베트남거점세종학당이 베트남교육방송공사(VTV)와 공동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베트남교육방송공사는 한국의 EBS와 같은 공영 교육 방송사로, 베트남 공영방송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그램 이름은 '한국어로 말해보요'로, 베트남 지상파 공영방송 채널인 VTV7을 통해 9월 15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총 20회 방송된다. 방송은 세종학당재단 및 VTV7 누리집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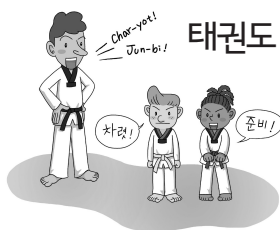
이규립 베트남거점세종학당 소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된 것에 이어 지상파 공영방송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TV를 보는 황금 시간대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배정한 것은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열기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학당재단은 베트남거점세종학당을 통해 앞으로도 현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행사를 지원하며 현지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21/09/01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20>



▲ 9월 15일부터 베트남 지상파 공영방송 채널 VTV7에서 방영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로 말해보요' 포스터 (사진 세종학당재단)



아프간 태권도 선수 도운 조정원 총재, “약자 돕는 게 태권도 정신”

세계태권도연맹(WT)의 조정원(74) 총재가 태권도의 패럴림픽 정식종목 채택 후 첫 무대인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찾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태권도의 패럴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WT와 조 총재의 숙원이었다. 조 총재는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조 총재는 9월 3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에서 “패럴림픽에 태권도가 들어간다는 꿈을 상상하다가 현실이 돼 기쁘다.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원이었다.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 패럴림픽에 모두 정식 종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쁘다”며 “WT가맹 210개국 숫자와 비교하면 세계적인 (장애인태권도) 수준은 아직 미비하지만 패럴림픽 이후 불이 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태권도는 2015년 1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회에서 도쿄패럴림픽 22개 종목 중 하나로 선정됐다.

WT와 조 총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떠나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쿠다다디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발길이 묶였다. 쿠다다디는 해외 매체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IPC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프랑스 파리를 거쳐 도쿄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WT와 현지 사정에 밝은 태권도계 인사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총재는 “WT는 어떤 단체들보다 앞장서서 난민, 어려운 국가의 선수들을 지원하는데 최전선에 섰다. 2016년 태권도박애재단을 설립했고, 태권도 케이스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각지에 있는 난민,



▲ 아프가니스탄의 자키아 쿠다다디가 9월 2일 2020도쿄패럴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16강 경기를 치르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유소년에게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힘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쿠다다디 선수와 육상 선수(호사인 라소울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다. 특히 태권도 선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그들이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쿠다다디 선수가 ‘도쿄패럴림픽에 꼭 출전하고 싶다’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우리의 역할은 작은 부분이었지만 기꺼이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쿠다다디, 라소울리가 카불에서 도쿄로 오기까지의 자세한 절차,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다다디가 경기를 치른 지난 9월 2일 앤드류 파슨스 IPC 위원장은 조 총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WT는 쿠다다디에게 그의 이름을 새긴 연맹 블랙벨트를 선물로 건네며 격려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 정신이라는 게 약자를 돕고, 평화를 인식시켜주는 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본다”며 “태권도를 통해 난민, 유소년, 고아, 재소자 등을 도우면서 꿈과 희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태권도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건 곧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다”고 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양성 평등처럼 WT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드러난 장면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남녀 심판 숫자다. 남녀 심판 각 15명, 동수를 배정한다. 조 총재는 “2016 리우대회 때부터 남녀 심판의 숫자를 15명씩 같게 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선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세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올림픽 종목 중 회원국 수가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의 규모가 됐다”며 “이제는 태권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스포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잔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존중받는 스포츠 기구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될 때, 비로소 올림픽과 패럴림픽 스포츠로서 길이 남을 것이다”고 했다.

[기사 출처]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2021/09/03

<https://www.chosun.com/sports/tokyo-2020/2021/09/03/QR12ZUX27ZDU3ARYJNICMLQ12/>

2021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1년, 한국문화교류재단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옥,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정우,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장정웅,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제아시아발전재단, (주)동아지질,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비바디벤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일이엔에스(주), (주)P&H

가나다순,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총액 : 21,060,000원

■ 아시아발전재단(ADF), '2021 태권도의 날' 문체부 장관상 수상

ICKC 前 이사장인 조남철 방송대 명예교수께서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준일)이 아시아 저개발국 소외계층에 대한 태권도 무상교육 실시 등 태권도 진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1 태권도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파리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해 정부는 2008년부터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해 왔다. 올해의 경우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식 기념행사 대신 기념영상 공개로 대체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을 대신해 조정원 총재는 9월 10일 오후 WT 총재 접견실에서 김준일 ADF 이사장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ADF는 WT와 2019년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시아 지역 WT 회원국 고아, 소년원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피해 여자아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1년간 태권도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다.

며, 우리 ICKC도 이에 동참해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까지 'WT-ADF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수혜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부탄, 레바논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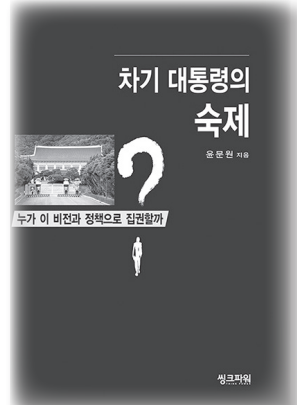


▲ 황희 문체부 장관을 대신하여 김준일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에게 '2021 태권도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전달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왼쪽부터 강석재 WT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총괄 전문위원, 조정원 WT 총재, 김준일 ADF 이사장, 조남철 ADF 상임 이사

■ 윤문원 ICKC 운영위원, 정책비전서 『차기 대통령의 숙제』 출간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인성교육 전문가인 윤문원 ICKC 운영위원이 정책비전서 『차기 대통령의 숙제 - 누가 이 비전과 정책으로 집권할까』(씽크파워 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윤문원 작가는 차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초입류 국가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포함한 여러 구성원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 조목조목 조언하고 있다. 특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부동산 등 경제 문제, 교육 개혁, 공직 개혁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피부에 와 닿는 분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윤문원 작가는 저서로 인성교재 시리즈 10여 권을 비롯해, 60여 권의 교양도서 및 번역서, 조선일보 영화와 논술 등 다수의 주요 언론 장기 연재 칼럼 등을 집필한 베테랑 작가로, 저서 중 여러 글이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등에 수록되고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다. 지면을 빌려 윤문원 운영위원의 책 발간을 축하드린다.

윤문원 저, 『차기 대통령의 숙제』, 264쪽, 1만 5천 원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종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를 손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및 다문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공익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슬로건 Slogan

Great Asia!
다시 아시아로!



비전 Vis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미션 Mission

교류와 협력
나눔과 상생



아시아발전재단 주요사업

교류협력 문화교류캠프, 학술활동 지원, 한민족청년캠프 등

인재양성 아시아·국내·동포 장학사업, 이중언어교실 지원 등

공익문화 해외 태권도·한글 보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등

